

제 1 교시

국어 영역

[1~4] (가)는 학생회에서 개최할 '나눔 장터' 행사의 홍보를 위한 토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자, 먼저 홍보용 안내 게시물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할지부터 말해 보자. 내 생각에는 학생들의 행사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나눔 장터'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식으로 게시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2: 잠깐. ㉠ 게시물의 형식부터 먼저 결정하면 게시물에 들어갈 내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3: '밤샘 독서' 행사 때에도 오랫동안 토의하면서 게시물 내용을 정했지만, 그 형식이 뒤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내용 선정 토의를 다시 해야 했잖아?

학생 1: 그랬었지. 그럼 이번 안내 게시물은 광고 포스터 형식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개최 시기나 장소 등과 같이 '나눔 장터'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포스터 형식이 좋을 것 같아.

학생 3: 그것도 좋지만, 작년에 행사가 끝난 후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행사의 취지와 참가 방법을 몰라 참여를 못 했다는 의견이 많았잖아?

학생 2: ㉡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

학생 1: 그럼 행사 취지와 물품 판매 방법 등은 안내 글 형식으로 설명하고, 그 옆에는 '나눔 장터'의 개최 시기와 장소와 같은 행사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함께 게시하는 것은 어떨까?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럼 안내 글은 내가 작성할게. 작년 행사의 문제점을 정리한 질문자료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학생 1: 그럼 안내 포스터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말해 보자. 행사 제목은 그대로 해도 괜찮겠지?

학생 3: 작년 행사 제목은 너무 식상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학교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목이나 교화를 활용하자. 둘 중 어느 것이 좋을까?

학생 2: ㉢ '나눔 장터'에는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교화보다는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 교목인 느티나무를 활용하자. 그리고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행사의 의의를 소개하는 문구도 넣자.

학생 3: 좋아. 그리고 포스터만 봐도 '나눔 장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포스터 중앙에는 행사 진행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건 어때?

학생 2: 그래. 그리고 그림 우측에는 '나눔 장터'의 정보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하고 좌측에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학생 1: 포스터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행사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까?

학생 3: ㉣ 그림 그림의 양쪽에 제시할 정보는 일부 내용만 선별해서 제공하도록 하자.

[A]

[B]

학생 2: 행사 참여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학생이 많았다는 작년 설문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그림 아래에 행사 참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어때?

학생 3: 그게 좋겠다. 그리고 ㉤ 이번 '나눔 장터'를 준비하는 데 후원을 해 준 단체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게, 그 단체들의 이름을 제시하는 건 어때?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그럼 포스터 제작과 관련된 일정은 다음에 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나)

한 번만 읽고 책장에 꽂아 놓은 책, 책상 서랍에 방치된 장난감이나 문구류. 나에게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수 있는 물건. '나눔 장터'는 이처럼 자신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남들에게는 쓸모 있는 물건을 행사 참여자들이 직접 사고팔아 재사용을 실천함으로써 환경을 지키고, 또 행사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에도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물품 판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 '나눔 장터' 게시판에 의류 및 문구류, 도서류와 같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판매 가격, 물품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단, 동·식물, 고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전자 제품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 수량과 판매 물품의 가격은 판매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구름다리 미술 전시회, 먹거리 시장, 체험 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나눔 장터'에서 모은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동과 독거노인과 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므로, 판매 수익금은 기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 제안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토의 안건의 논의 순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② ㉡: 설문 결과를 근거로 포스터 형식의 게시물을 채택하지는 상대의 의견과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발화이다.
- ③ ㉢: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가 발언한 제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발화이다.
- ④ ㉣: 포스터를 제작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전달할 정보의 양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는 발화이다.
- ⑤ ㉤: 행사에 도움을 준 단체를 밝히지는 자신의 제안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발화이다.

2.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학생 2'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의견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3'이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3'이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3.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 포스터'이다.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부를 통한 물건의 재사용  
재사용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  
재활용을 통한 수익의 사회 환원과 환경 보호

**제2회 느티나무 나눔 장터**

버득시장  
의류, 학용품, 도서, 장난감

먹거리 시장  
음료, 떡볶이, 김밥

체험 마당  
천연 비누, 목공

2019년 7월 13일 (토)  
낮 12시부터 4시까지  
**학교 운동장**

㉠

참가 대상 :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 방법 : 우리 학교 홈페이지 '나눔 장터' 게시판에 신청  
접수 기간 : 2019.7.10.(수)~7.12.(금)  
후 원 : ○○시 착한 가게 / 새로운 출발 모임  
※ 판매 가능 물품 및 등록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 ① ㉠을 보니 '나눔 장터' 행사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대구법과 연쇄법을 활용한 문구를 제시하였군.
- ② ㉡를 보니 학생들이 '나눔 장터'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항목화하여 나타내었군.
- ③ ㉢를 보니 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나눔 장터'의 개최 시기와 목적이 드러나는 그림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겠군.
- ④ ㉣를 보니 포스터에 실릴 정보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행사 일시와 장소와 관련된 정보만을 수록하였군.
- ⑤ ㉣를 보니 작년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를 고려하여 행사 참여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였군.

4. <보기>는 '학생 3'이 (나)를 쓰면서 활용한 설문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구매한 꽃이 금방 시드는 바람에 판매자와 언쟁을 벌인 경우가 있었음.
-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술 전시회나 체험 마당에 참여한 학생이 적었음.
- 기부금의 사용 계획을 알지 못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지 않은 판매자도 다수 있었음.
- 많은 학생들이 행사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으며, 참여 방법을 알지 못해 물건을 판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음.

- ① 판매 수익금의 기부를 권장하기 위해 기부금의 사용 계획을 제시하였다.
- ②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의 종류를 안내하였다.
- ③ 행사의 취지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나눔 장터'의 개념과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 ④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나눔 장터' 행사 때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 ⑤ 물품 판매 방법을 몰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판매 물품을 등록하는 방법과 참가 자격을 안내하였다.

5. <보기>의 ㉠ ~ ㉣를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 발음을 하며 발에 ㉡ 뵤힌 발을 보았다.
- ㉢ 술한 시련을 이겨 내 승리를 ㉣ 곶혔다.

- ① ㉠에서는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종성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② ㉡에서는 '일'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트'이 연음된다.
- ③ ㉢와 ㉣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 ④ ㉢와 ㉣에서는 모두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와 ㉣에서는 모두 거센소리되기가 먼저 일어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6.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남북한의 사진을 탐구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가)와 (나)의 자료를 비교해 볼까요?

(가) 표준국어대사전

대로1 「의존 명사」

- (1)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본 대로.
- (2)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 『집에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라.
- (3) (어미 '-는' 뒤에 쓰여)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즉즉. 『뜸나는 대로 찾아 보다.

대로10 「조사」 (체언 뒤에 붙어)

- (1)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 (2)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나) 조선말대사전

대로6 [명](불완전\*)

- (1) (앞에 오는 단어가 뜻하는것과) 다름없이. || 명령대로 집행하다.
- (2) (앞에 오는 단어가 나타내는 대상이나 현상과) 같은 모양대로. | 책이 그가 펼쳐놓은대로 있었다.
- (3) 앞에 온 단어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즉즉. || 생각나는대로 적다.
- (4) 《서로 구별되게 따로따로》의 뜻을 나타낸다. | 우리는 우리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초소는 달랐다.

\* 불완전 : 의존 명사를 뜻하는 말.

- ① 용례를 보니 (가)의 '대로10'과 (나)의 '대로6'은 앞말에 붙여 사용되었습니다.
- ②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가)의 '대로10-(1)'은 (나)의 '대로6-(4)'와 쓰임이 유사합니다.
- ③ 품사 정보를 보니 (가)의 '대로1', '대로10'과 (나)의 '대로6'은 문장의 첫머리에 쓰일 수 없는 말입니다.
- ④ 뜻풀이를 보니 (가)의 '대로1', '대로10'과 (나)의 '대로6'은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 말입니다.
- ⑤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길을 가다.'의 '대로는 (가)에서는 조사이지만, (나)에서는 명사입니다.

7.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그곳에서는 빵을 아주 쉽게 구울 수 있다.
- ㄴ. 그 사람은 자기가 잠을 잘 자다고 말했다.
- ㄷ. 멋진 형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지어 왔다.

- ① ㄱ의 '그곳'과 ㄴ의 '그'는 어떤 처소나 대상을 지시하는 대명사이다.
- ② ㄱ의 '아주'와 ㄴ의 '잘'은 용언 앞에 놓여서 그 뜻을 한정하는 부사이다.
- ③ ㄱ의 '구울'과 ㄷ의 '지어'는 용언의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활용되는 동사이다.
- ④ ㄱ의 '쉽게'와 ㄷ의 '멋진'은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 ⑤ ㄴ의 '가'와 ㄷ의 '에서'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특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확질이 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 부터 불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 다거나 혹은 일을 해 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 없이 그리웠다. 그 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 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 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였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 쳐주는 모범 청년이였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거뒀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 빨 생 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 참판이든 뻔뻔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였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 더라도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 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 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 줄이며 혼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둬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옛, 옛,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때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뻥히 보고 싶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이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A] 가뜩한데 얹치고 덜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셋바람과 비에 벼는 깨개 비틀렸다. 이눔을 가을하다 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빛도 다 못 ㉢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둬다고 말만 하면 빗쟁이들은 우— 물려들 거니깐.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다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튼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울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 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둬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벼를 잘못 해 놓으면 여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 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쪽정이는 제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상만 따 갔다. 그 면직으로 어렵하면 아마 못 꽤도 한 댓 말 가량은 될는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개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꽤는 좋아 입어야 될 것이다.

(중략)

한 식경쭈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눈독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뭇지 형겅이 가리었다. 붓짐을 등에 짊어 메고는 허리를 구뭇이 뺨소니를 ㉥ 놓는다.

그러자 응칠이가 날췌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 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향을 지르니 눈독으로 고대로 테굴테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개를 내려조겼다. 어이쿠루, 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피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 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건으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똥맛은 바람만 공중에서 복새를 논다.

[B]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책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  
이 북받친다. 붓짐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데통스레이 내뺨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 꼴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 김유정, 「만무방」 -

- \* 장리 :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 \* 도지 :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는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 \* 색초 :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가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상황한 해설을 통해 작가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의 드러내고 있다.
- ⑤ 회상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ㄱ. [A]는 [B]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상황적 배경이 된다.
- ㄴ. [A]에 드러나 있는 갈등은 [B]에서 극적으로 해소된다.
- ㄷ. [A]와 [B]가 묶여 당시의 궁핍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 ㄹ. [A]에서는 불만의 대상이 개인이었다가 [B]에서는 사회로 확대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0. '응칠'의 행동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보기>를 토대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ㄱ. 응칠이는 먼 곳에서 동생을 찾아온다.  
 ㄴ. 응칠이는 답판을 지으려고 지주를 만난다.  
 ㄷ. 응칠이는 지주의 뺨을 때린다.  
 ㄹ. 응칠이는 눈에 가서 도적을 기다린다.  
 ㅁ. 응칠이는 도적을 잡기 위해 다짜고짜로 달려든다.

- ① ㄱ, ㄴ을 통해 동생을 생각하는 응칠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 ② ㄱ, ㄹ에서 응칠이가 동생을 찾아온 일이 도적과 관계됨을 알 수 있어.
- ③ ㄴ, ㄷ, ㅁ을 통해 호락호락하지 않은 응칠이의 성격을 알 수 있어.
- ④ ㄴ, ㄹ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응칠이의 의지를 볼 수 있어.
- ⑤ ㄹ, ㅁ은 응칠이가 자신에게 미칠지 모를 혐의를 벗기 위해 한 행위일 수 있어.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진실한 농꾼'의 행위인 점에 비추어, 의도가 단순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노동의 결과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쓸쓸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 ③ ㉢: 새로운 문제의 발생으로 사건이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예상된다.
- ④ ㉣: 싸움 중에 잠시 찾아온 침묵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표현되어 있다.
- ⑤ ㉤: 뜻밖의 상황을 당해 당혹스러워 하는 인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12. ㉠~㉣를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알아주는                      ② ㉡: 태우며
- ③ ㉢: 같을                            ④ ㉣: 거칠게
- ⑤ ㉤: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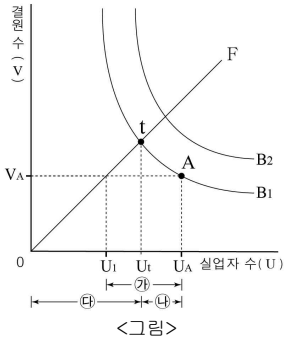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 활동 인구'와 육아, 가사, 취학,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한다. 경제 활동 인구는 현재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로 나뉜다.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 '실업률'은 국가 경제를 드러내는 ㉡ '지표'의 하나로, 보통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 상황이 매우 좋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한 사람을 취업자로 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업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도 모두 취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능력이 있으나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인 '구직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률만으로는 정확한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노동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 '고용률'을 더 중시하는 ㉣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에서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낮으면 실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에 따른 실업 형태를 ㉤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실업은 크게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요 부족 실업이란 어떤 경제의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전체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며 그것의 단기적 현상이 경기적 실업이다. 즉, 경기적 실업이란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인원 감축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인 것이다. 비수요 부족 실업에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그리고 계절적 실업이 있다. 마찰적 실업이란 노동자들이 이사나 이직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고용 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으로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 수준만큼은 나타난다. 구조적 실업은 빈 일자리와 실업이 ㉠ 공존하더라도 생산 설비 자동화와 같은 기술 혁신에 따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부족하거나 노동자의 지역 간의 이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력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노동자가 갖추지 못하면 사라지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계절적 실업이란 농업·어업, 관광업 등에서 특정 계절에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계절의 변화로 인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실업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실업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빈 일자리와 실업 간의 관계를 보여 주는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에서 가로축은 실업자 수(U)를, 세로축은 충원되지 않은 빈 일자리 수인 결원 수(V)를 나타낸다. 이 <그림>에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것은 결원 수가 감소하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그 역도 또한 성립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의 원점에서 45°로 나간 직선 F는 베버리지 곡선 B1과 t에서 만나고 있다. 이 t는 실업자 수와 결원 수가 동일해 모든 실업자가 고용될 수 있는 완전 고용 상태에 해당한다. 현재 노동 시장의 상황



을 A라 할 때, 수요 부족  
실업의 경우 노동자 수에 비  
해 빈 일자리가 부족하여 발  
생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U<sub>A</sub>에서 V<sub>A</sub>를 빼면 A에서  
의 수요 부족 실업자 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V<sub>A</sub>는 U<sub>1</sub>과 동일하므로 결  
국 U<sub>A</sub>에서 U<sub>1</sub>을 뺀 ㉢를  
수요 부족 실업자 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 부양

대책으로 수요 부족 실업을 ㉢ 해소하여 결원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B<sub>1</sub>의 완전 고용 수준인 t에 대응하는 U<sub>t</sub>까지만 실업자 수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U<sub>A</sub>에서 U<sub>t</sub>를 뺀 ㉡가 되고 경기가 좋아져서 취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과 같은 비수요 부족 실업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실업자 수와 결원 수가 동시에 증가하면 B<sub>1</sub>에서 B<sub>2</sub>로 베버리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는 노동 시장에서 결원 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노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정도가 높아져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베버리지 곡선을 활용하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노동 가능 인구 : 노동력의 관점에서 군인과 수감자를 제외하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

1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찰적 실업과 계절적 실업은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경기적 실업은 산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 ③ 일할 의사가 없어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베버리지 곡선을 통해 수요 부족 실업과 비수요 부족 실업을 구분할 수 있다.
- ⑤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고려하면 고용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육아로 인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에 반영된다.
- ②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8시간만 일을 한 사람은 ㉣에 반영되지 않는다.
- ③ 이직을 위한 퇴직자가 증가하면 ㉠은 감소하고 ㉣은 증가한다.
- ④ 취업 준비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은 감소하고 ㉣은 증가한다.
- ⑤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

나면 ㉠은 증가하고 ㉣은 감소한다.

15. <보기>의 상황에 나타난 실업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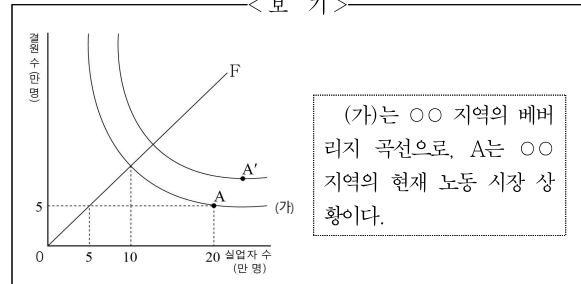
< 보 기 >

△△ 지역은 대표적 산업인 제화업의 호황으로 6%p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로 인한 동반 성장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고용 수요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올해 □□제화에서 노동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가죽 재단과 접착 공정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면서 재단과 접착 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 3천여 명이 실직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올해 △△ 지역의 실업률이 10%p 이상 증가하였다.

- ① 과도한 설비 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정부는 □□제화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 ② △△ 지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제화의 인원 감축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정부는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 ③ 계절적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실업이므로 정부는 □□제화에 실업자들을 시기에 따라 고용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 ④ 제화업의 호황에 따라 더욱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자발적 실업이므로 정부는 실업자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 ⑤ □□제화의 제조 방식이 변화하여 발생한 실업이므로 정부는 실업자에게 유용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직업 교육을 활성화한다.

16.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① OO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켜 일자리의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10만 명의 실업자가 있을 것이다.
- ② OO 지역의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현재의 실업자 수에서 결원 수를 뺀 것이므로 15만 명이다.
- ③ 수요 부족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OO 지역의 경기를 부양시키면 현재보다 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 ④ 베버리지 곡선은 OO 지역의 10만 명에 해당하는 비수요 부족 실업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 ⑤ OO 지역의 노동 시장 상황이 A에서 A'로 이동한다면 노동 시

장에서 비수요 부족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찬비는 국화에 어울리지 않게 내리고	[A]	寒雨不宜菊
작은 술동이는 사람 가까이 있구나		小尊知近人
문을 닫으니 붉은 잎 떨어지고		閉門紅葉落
시구를 얻으니 흰 머리 새롭구나		得句白頭新
정다운 벗 생각할 때는 즐겁다가		歡憶情親友
적막한 새벽 되니 시름 더하네		愁添寂寞晨
그 언제나 반가운 눈길 마주하고		何當青眼對
크게 웃으며 양춘(陽春)을 볼거나		一笑見陽春

- 박은(朴聞), 「우중(雨中)에 택지(擇之)\*를 생각하며」 -

\* 택지 : 박은의 친구 이형(李衍)을 가리킴.

(나)

간 밤에 불던 바람 천산에 비 뿌리니		
구십(九十) 동군(冬軍)이 춘광(春光)을 자랑하듯		
미쁨손 친지 마음 봄을 절로 알게 하니	[B]	
나무 나무 잎이 피고 가지 가지 꽃이로다		
방초(芳草)는 처처(處處)한데 춘풍 소리 들리거늘		
<b>눈 씻고</b> 일어 앉아 객창을 열어 보니		
객창에 <b>수지화(樹持花)</b> 는 웃는 듯 반기는 듯		
반갑다 저 꽃이여 예 보던 꽃이로다		
<b>낙양 성중</b> 에 저 봄빛 한가지요		
<b>고향 원상(園上)</b> 에 이 꽃이 피었는가		
지난해 오늘날에 <b>웃음</b> 웃어 보던 꽃은		
청춘(淸樽)에 술을 붓고 꽃 꺾어 산(算)을 놓고		
장진주(將進酒) 노래하고 무진무진 먹자 할 제		
내 번화(繁華) 질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올해 이날에 <b>눈물</b> 뿌려 볼 줄 알까		
아침에 나쁜 밤이 저녁에 시장하니		
박잔에 흐린 술이 값없이 쉬울쏘냐		
내 <b>고생 슬픔</b> 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아마도 이 고생이 수유간(須臾間)의 꿈이로다		
전년 꽃 올해 꽃이 <b>꽃빛</b> 은 한가지나		
전년 사람 올해 사람 <b>인사(人事)</b> 는 다르도다		

- 안조원, 「만언사」 -

(다)

영숙(永叔)은 장수 집안의 후예다. 그 선조 중에 나라일로 죽은 충신이 있으니 지금도 사대부들은 그 일을 슬피 여긴다. 영숙은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잘 쓰고, 옛일과 전거(典據)에 밝으며, 젊어서부터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해 마침내 무과에 급제하였다. 비록 벼슬은 운세 때문에 막히고 말았지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죽으려는 뜻은 죽지 선대의 위업을 이을 만하여 사대부들에게 부끄러울 게 없었다. 아! 영숙은 어찌하여 온 식솔을 이끌고 예맥(穢谿)의 땅으로 가려 하는가?

전에 영숙은 나를 위해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에 집터를 봐 준 일이 있다. 산은 깊고 길은 험해 종일 가 봐야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곳이었다. 영숙은 나와 함께 갈대밭 가운데 말을 세우고 채찍으로 높은 언덕배기를 이리저리 구획하며 이런 말을

했다.  
“저기에다 울타리를 치고 뽕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면 해마다 좁쌀 천 석은 거둘 수 있겠습니다.”

시험 삼아 부시를 치자 바람 따라 불이 번졌다. 그러자 평이 푸드득 놀라서 날고, 새끼 노루가 앞에서 튀었다. 영숙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그걸 쫓다가 시내에 막혀 돌아왔다. 이에 나를 보고 웃으며 이리 말했다.

“백년도 못 살 인생인데, 어찌 답답하게 나무와 바위뿐인 곳에 살며 조밥 먹고 평, 토기나 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영숙이 기린협(麒麟峽)에 살겠다고 한다. 송아지를 엮고 들어가 그걸 키워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다. 그곳에 소금도 메주도 없어 아가워와 돌배로 장을 담가야 한단다. 그 험준하고 궁벽하기가 연암협보다 훨씬 심하니 어찌 같이 비교나 할 일인가.  
① 나는 갈림길에서 망설이며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거늘 감히 떠나는 영숙을 막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길 지언정 그의 곤궁함을 슬퍼하지 않으려다.

- 박지원,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주는 서」 -

17.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회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가)~(나)는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나)는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1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 ② [A]와 [B]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 ③ [A]와 [B]는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④ [A]는 반어, [B]는 비유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⑤ [A]는 시각적 심상이, [B]는 청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박은은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가진 인물이다. 박은의 시에는 인생의 비애가 나타나 있으며, 잔뜩 찌푸린 우울한 풍경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 ① ‘찬비’를 맞는 ‘국화’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작은 술동이는’ ‘시름’과 관련하여 화자의 고뇌를 달래는 수단이었군.
- ③ ‘문을 닫으니’는 세상을 대하는 강직하고 올곧은 화자의 성품과 관련이 있겠군.
- ④ ‘흰 머리 새롭구나’는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였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⑤ '적막한 새벽'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이겠군.  
 20.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 씻고'는 봄 풍경을 본 후 눈물짓는 모습으로 화자의 '고생 슬픔'을 짐작케 한다.
- ② '수지화'를 대하는 반가움을 의인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고향 원상'은 '낙양 성중'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 ④ 지난날의 '웃음'은 오늘날의 '눈물'과 대비되어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 ⑤ '꽃빛'과 '인사'가 대비되어 인간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조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박지원은 정서적 유대가 깊었던 누이를 잃고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친한 벗을 잃은 것을 계기로 연암협에 거처를 마련했다. 이 글을 쓸 당시 박지원은 서울과 연암협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이주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나고 자란 곳을 떠난다거나 벗들과 헤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 ① '갈림길에서 망설인다'를 통해 글쓴이는 '연암협'과 서울의 생활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영숙이 '기린협'으로 떠나는 것을 '감히~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글쓴이 자신의 처지에서 비롯된 갈등과 관련이 있다.
- ③ '그의 뜻'은 '영숙이 '기린협'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영숙이 '기린협'으로 가는 것을 '장하게 여긴다'에는 그의 선택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
- ⑤ '그의 곤궁함을 슬퍼하지 않으리다'에는 글쓴이가 '영숙'의 처지를 이해하며 공감하는 심정이 담겨 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경과학의 많은 연구들은 기억의 형성을 '장기강화'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뇌의 신경세포들은 세포 사이의 틈새인 시냅스로 전기적·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냅스 연결을 한다. 이 신호가 강력해 시냅스 연결이 오래 유지되는 현상이 장기강화이며, 이를 통해 기억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시냅스 연결은 신경세포에 있는 이온들의 활동이 바탕이 된다. 이온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되며 이동하는 성질 등으로 신경세포막의 안과 밖을 이동한다. 이러한 이온의 이동은 신경세포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우선 외부 자극이 없으면 주로 세포막 밖은 양이온이 많고, 안은 음이온이 많아져 세포막 안팎이 각각 양전하, 음전하로 나뉘는 분극이 일어난다. 이 과정의 신경세포는 안정 상태에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 등의 외부 자극이 있으면 양전하를 띤  $\text{Na}^+$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어

세포 안에 양전하가 쌓이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탈분극은 신경세포를 흥분상태로 만들면서 전기적 신호인 활동전위를 형성한다. 신경세포가 흥분상태가 되면 세포 밖의  $\text{Ca}^{2+}$ (칼슘 이온)이 안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이  $\text{Ca}^{2+}$ 은 글루탐산을 비롯한 여러 신경전달물질, 즉 화학적 신호를 밖으로 분비시킨다. 이 신호가 다른 신경세포와 결합하면서 시냅스 연결이 이루어진다. 이때 화학적 신호를 분비한 세포를 '시냅스전세포', 화학적 신호를 받는 세포를 '시냅스후세포'라고 한다.

이러한 시냅스 연결이 장기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글루탐산과  $\text{Ca}^{2+}$ 의 역할 때문이다. 흥분상태의 시냅스전세포가 분비한 글루탐산은 시냅스후세포의 암파 수용체\*와 NMDA 수용체를 자극한다. 먼저 암파 수용체의 통로는 많은 양의 글루탐산의 자극이 있으면 개방된다. 이 통로로  $\text{Na}^+$ 이 안으로 확산되면 시냅스후세포도 탈분극되어 흥분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글루탐산의 자극을 받고 있는 NMDA 수용체의 통로에서  $\text{Mg}^{2+}$ (마그네슘 이온)이 제거되어 통로가 열린다. 그리고 개방된 NMDA 수용체 통로로  $\text{Na}^+$ 과  $\text{Ca}^{2+}$ 이 확산에 의해 안으로 유입된다. 유입된  $\text{Ca}^{2+}$ 은 세포 안의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단백질은 새로운 암파 수용체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시냅스후세포는  $\text{Na}^+$ 을 더 많이 받아들여 탈분극을 강화하고,  $\text{Ca}^{2+}$ 의 유입이 지속되어 흥분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흥분된 시냅스후세포는 역으로 시냅스전세포에 신호를 보내 시냅스전세포의 글루탐산 분비량을 늘려 시냅스 연결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냅스 연결은 3시간까지 유지되는데, 이를 초기 장기강화라고 한다. 이에 비해 시냅스 연결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를 후기 장기강화라고 한다. 후기 장기강화가 초기 장기강화와 다른 점은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것이다. 암파 수용체는 수명이 짧아 시냅스 연결을 유지하려면 암파 수용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초기 장기강화 때처럼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만을 활용하면 이를 지속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롭게 단백질을 합성해 암파 수용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초기 장기강화를 통해 단기기억이, 후기 장기강화를 통해 장기기억이 형성된다고 본다.

\* 수용체: 단백질로 된 구조물로 세포 외 물질에 반응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막을 관통하는 통로를 갖고 있어 이온을 투과시키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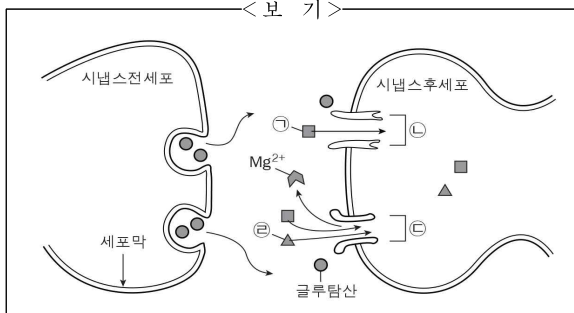
2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틈새가 존재한다.
  - ② 시냅스 연결이 유지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 ③ 시냅스전세포와 시냅스후세포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 ④ 신경세포가 흥분상태일 때 전기적 신호가 만들어진다.
  - ⑤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양이 줄어든다.

23.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 자극이 없을 때  $\text{Na}^+$ 은 신경세포 외부보다 내부에 더 많이 분포하겠군.
  - ② 장기강화에서 암파 수용체가 많아지면 NMDA 수용체의 기능이 억제되겠군.
  - ③ 암파 수용체의 통로가 열리면 시냅스후세포 안의  $\text{Na}^+$ 의 농도는 떨어지겠군.
  - ④ 시냅스전세포 내부의  $\text{Ca}^{2+}$ 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면 글루탐산이 분비되겠군.
  - ⑤ 글루탐산의 자극과 시냅스후세포의 강한 탈분극이 동시에 일어



나면 시냅스후세포의 단백질 합성화가 억제되었군.

24. [A]를 참고하여 <보기>를 44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냅스후세포가 흥분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 ② ㉠이 시냅스후세포로 유입되면 ㉡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 ③ ㉡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시냅스전세포가 분비한 글루탐산의 자극이 필요하다.
- ④ ㉡의 통로로 ㉢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시냅스후세포의 탈분극이 필요하다.
- ⑤ ㉢의 유입이 지속되면 시냅스후세포의 흥분상태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25. 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실험 조건]**

- 신경세포 A에 강한 전기적 자극을 가해 강한 신호를, 신경세포 B에 약한 전기적 자극을 가해 약한 신호를 발생시켜 신경세포 C와의 시냅스 연결을 시도함.
- A, B, C 이외의 다른 신경세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실험에서 가하는 전기적 자극 이외 다른 자극은 없음.

**[실험 내용 및 결과]**

- ㄱ. A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C로 전달하였더니 시냅스 연결이 2시간가량 지속되었다.
- ㄴ. B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C로 전달하였더니 시냅스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ㄷ. A에서 발생시킨 신호와 B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동시에 C로 전달하였더니 두 경로의 시냅스 연결은 모두 2시간가량 지속되었다.

- ① ㄱ의 A에서는 분극 상태가 지속되어 활동전위가 형성되지 않았겠군.
- ② ㄱ의 C에서는 A의 신호를 받아들여 새로운 단백질 합성을 일으켰겠군.
- ③ ㄴ의 C에서는 Na<sup>+</sup>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강한 탈분극이 일어났겠군.
- ④ ㄴ의 B와 달리 ㄷ의 B에서는 Ca<sup>2+</sup>이 유입되지 않아 글루탐산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았겠군.
- ⑤ ㄷ의 C와 달리 ㄷ의 C에서는 세포 안의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암파 수용체가 만들어졌겠군.

※ 확인 사항  
 ○ 제한시간 40분